

42. 1일 2식 3찬에 담긴 검소함

쌍취헌 권철 대감은 나이가
퇴계보다 세살 아래였다.



임진왜란 3대첩 중 명장으로 이름 난
장군 권율이 그의 아들이다.



명종 때의 일이다.

내가 평소에 퇴계선생의
학문과 인품을 흠모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겠다.



권철은 퇴계의 집을 찾아갔다.

계십니까?
쌍취헌 대감께서 납시오!



권철 대감을 맞은 퇴계는 예의를 갖추어
꼭듯이 맞이하였다.



대감께서 어찌
누추한 이 곳까지
오셨습니까?

대학자를 뵈는데
제가 찾아 봐야지요.



두 사람이 모처럼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문을 논하다 보니 저녁이 되었다.



아버님, 식사 준비
되었습니다.

오냐.



소찬이지만
저희 집에서 저녁을
드시겠습니까?

그러하지요.



퇴계선생 집의 반찬은 검소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어떤가 보자.





그런데...



아이쿠, 보리밥에 반찬은 나물 세가지 뿐이구나.



듣던 대로
검소하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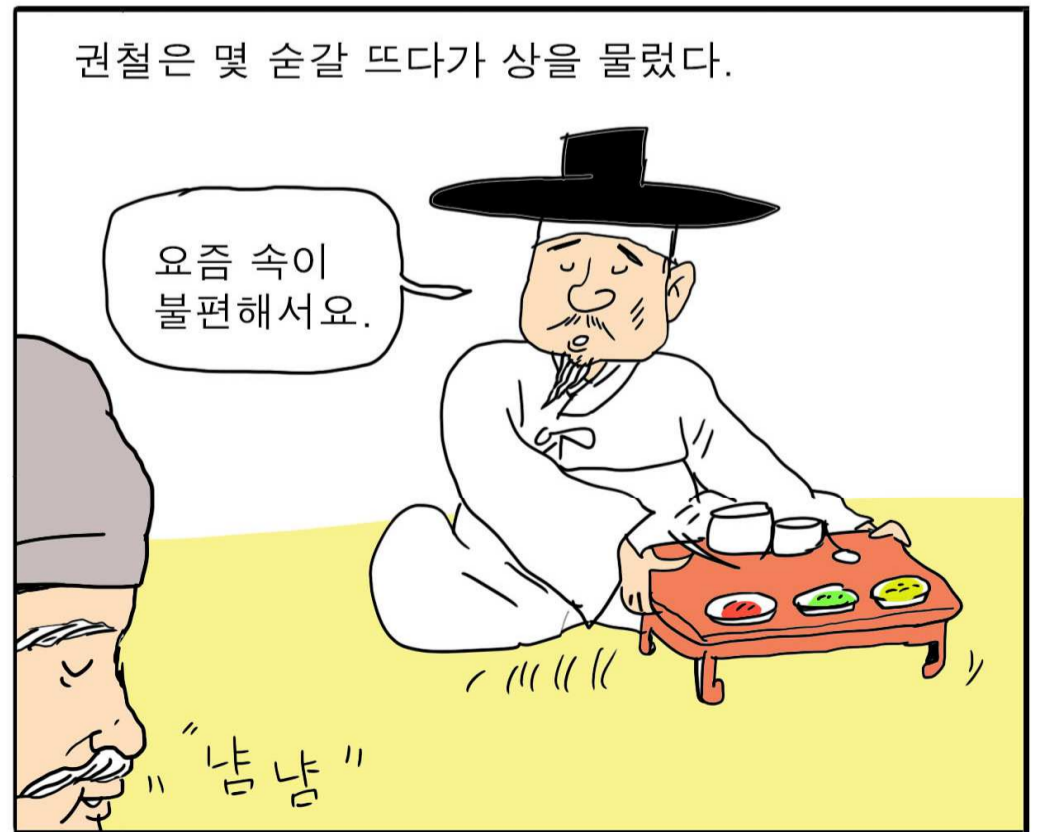


선생은 익숙하게
잘 드시는데...

"오물오물
냠냠"



잘 못드시네,
식욕이 없으신가...?



권철은 몇 손갈 뜨다가 상을 물렀다.

요즘 속이
불편해서요.

"냠냠"



폐가 많았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벌써 가시렵니까?



대감께서 먼길을 오셨는데 대접이
용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식사는 백성들의
끼니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식단입니다.

아, 네...



잘 아시겠지만 백성들은
고작해야 보리밥에
된장찌개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생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철대감은 그날부터 지극히 검소한 생활로 바뀌었다고 한다.

